

'소통 위해 휴일도 반납'

최영일 순창군수, 주말 강천산·터미널 등 민생현장 챙겨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8일 주말도 반납한 민생현장 방문과 군민·관광객 등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 주말 군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천산과 버스터미널, 일품공원에 마련된 어린이 물놀이장 등에 방문해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고자 나섰다.

최 군수는 교통약자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 순창 방문객의 관문이기도 한 터미널에서 노후 바닥 타일 등 환경정비와 무더위에 에어컨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 없는지 등을 꼼꼼히 챙겼다.

또한, 다른 현장으로 이동 중에도 교



차로에 설치된 햇빛 가림막에 비치해 놓은 생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기도 했다. 생수는 군에서 군민들이 탈수 등 온열질환 증세가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준비해 둔 것이다.

일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에서도 군민 의견 청취는 계속됐다.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물놀이장에 만족감을 표하며 최 군수에게 "일품공원 물놀이장 확대 운영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육천마을 당산나무 그늘에 모여 더위를 식히던 주민들에게서는 마을 골목길 주차 민원을 수렴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최 군수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강천산도 방문했다. 입구에서 가까운 주차장부터 민차가 돼 노령 방문객이 먼 제3주차장에서부터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천산에서 만난 또 다른 관광객들은 최 군수에 반가움을 표했다. 한 관광객은 "강천산은 그늘이 많고 계곡물이 시원해 쉬어가기 좋은 곳이라 좋아하는 여행지"라며 "군에서 시설을 잘 관리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폭염 예방행동 요령 숙지"

순창군, 폭염대책 추진... 생수 무료제공·실수차 운영

순창군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총괄상황반 등 3개반으로 폭염대책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무더위 헛터로 지정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148개소에 대한 냉방기 점검을 완료하여 노약자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폭염주의보 발효 시 중앙로, 터미널에서 교육청 사거리 등 관내 주요 도로 12.3km에 실수차를 운행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관내 주요 교차로에 군민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총 22개의 그늘막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중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터미널 교차로, 주공아파트, 순창교, 경찰서)에 얼

음과 생수를 채워 군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의 각 부서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지원, 안부전화, 방문건강체크 등 온열질환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고, 건설현장, 영농현장 등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제 운영을 유도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황정만 안전재난과장은 "앞으로 지속되는 폭염 등 기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예방행동 요령을 숙지하시고 외부활동에도 특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요양시설 신속한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남원시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요양시설의 확진자 관리를 위해 주 대상이 고령자 및 거동불편한 어르신인 점, 병원 대면진료도 어려운 상황에 따라 코로나 진료경험이 많은 의료팀(의사,간호사), 의료기동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동전담반은 지역사회의 협조로 남원내과(김춘호 원장)가 지정받아서 최근 환자가 급증 되는 요양시설에서의 요청에 따라 병원진료를 마친 일과 이후 시간에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를 해주고 있어 시설에서는 실제적 환자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을 대비해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 및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핫라인을 구축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다습기 채취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남원시는 지난 4월부터 다습기 채취 중 안전사고 예방을 테마로 제31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습기 채취와 관련, 전라북도에서만 매년 20여명 정도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남원에서는 2016년 1명, 2018년 2명이 다습기 채취 중 사망한 바 있다.

이날 캠페인 및 예찰에는 안전점검의 날 담당자, 물놀이 담당자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등으로 인원을 구성, 과거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다.

점검반은 사고지역 예찰하며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및 인명사고 발생지역 안내 표지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내표지판을 훼손된 지역은 8월 중 업체를 선정해 정비할 예정이다.

소명호 안전재난과장은 시민들에게 다습기 채취 시 무리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주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과수·특작분야 지원 사업 수요조사

남원시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관내 과수(만감류) 및 특목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의 소득향상과 생산비 절감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 의견을 반영해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과수(포도, 사과, 복숭아) 생산단지, 포도 물받이, 중형관정, 저온저장고, 다검보온케틀, 공기순환팬, 과수농기계(스피드스프레더,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과일선별기), 냉방방지용 온풍기, 저온피해예방 약제, 신소득(특용, 약용) 작물 육성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지 과수 방상팬 지원, 과수 저온저장고 신신도 유지제 지원, 과수 해충 교미교란제 지원사업을 신규로 포함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 고소득

작물인 아열대작물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남원시 기후특성에 맞는 아열대 작물인 레드향 등 만감류 시험 재배에 따른 묘목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희망자는 8월 28일 금요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방법 및 사업내용 등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이번 수요조사 신청 참여부에 따라 2023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대상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적정성 등 사업성 검토를 통해 2023년 과수·특작분야 사업채택 여부 결정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수요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8월 현안보고회의 개최

최경식 시장, 전북도민체전 사전 준비 총력 주문

남원시는 8일, 8월 현안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도민체전 준비사항, 주요현안, 주간업무계획 등을 보고 받고 제59회 전북도민체전의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15년 만에 남원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180만 도민이 스포츠와 문화로 화합하는 장이자 14개 시·군을 초래, 변화되고 있는 남원을 알리는 기회"의 장이라며, 성공개최를 위해 이용자 중심에서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여부가 도민체전 성공개최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전 개최 일주일 전까지 제로 코로나"가 될 수 있도록



남원시는 8일, 8월 현안보고회를 열었다.

각각각각을 가지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민체전이 치러지는 42개소 경기장 주변 정리 및 문화프로그램, 농산물 판매 매대 확충 등 각 부서별 전북도민체전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했다.

이어 최 시장은 간부들에게 "남원시의 재정여건이 달라질 수 있도록 국가예산확보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임실군,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쿠폰 대상자 신청·접수

임실군이 동절기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 난방비 부담 해소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

층 중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연탄비우려는 사업 대상자에게 카드형 쿠폰을 통해 지원되며, 가구당 지원액은 신청접수 후 공지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오는 1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쿠폰 사용기간은 수령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연탄 쿠폰은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사용하는 경우나 동절기 에너지비우려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타인 양도 및 현금화 등 부정 사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 민 군수는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수요자 모집에 나서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